

평화신문 창간 25주년 축하 원고

생명 평화의 길에서 희망의 등불로 함께 합시다

평화방송·평화신문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한국천주교의 대표언론으로서 천주교 소식뿐만 아니라 종교간 대화교류, 사회정의
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

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측면에서
는 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. 그 차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으
며, 생명의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.

몇 년전 ‘울지만 톤즈’ 를 통해서 본 이태석 신부의 삶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
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출되신 의미가 남다
른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인류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 종교가
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더불어 우리사회 종교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
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. 한국의 종교인들 스스로가 생
명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희망의 등불이 될
수 있습니다. 평화신문, 평화방송이 보다 더 생명평화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
기대하는 이유입니다.

인류의 빈곤과 기아 문제의 해결,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노
력할 것을 약속드리며, 평화신문·평화방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 2557(2013)년 5월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